



이일레(서울신대)

## 1. 들어가는 말

시편 109편은 격렬하고 잔인한 저주의 회색빛 배음이 시편 전체를 지배하는 듯 보인다. 이는 삶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저주를 전체 1/3에 해당되는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는 시편 109편을 비기독교적인 저주시편으로 규정했고, 지금까지의 연구사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시편 109편의 신학적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sup>1)</sup> 시편 109편이 비기독교적인 저주시편이라는 오명을 벗기고, 그 가치를 찾기 위

---

1)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476;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1), 257; H. J. Kraus, *Psalmen, BK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924; Hossfeld, F.-L. and Zenger E., *Psalms 3: A Commentary on Psalms 101-150* (Augsburg: Fortress Press, 2000), 128.

한 연구에 집중하는 연구사의 노력과 달리, 국내의 많은 시편 연구자들은 시편 109편에 나타나는 저주의 문제를, 특별히 6-19절의 번역과 관련하여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혹은 간헐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말 성경 번역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sup>2)</sup> 이러한 국내 연구의 경향은 또 다른 문제를 산출시킨다.<sup>3)</sup> 번역의 문제와 이로 빚어지는 신학적 문제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시편 109편에 나타나는 사회적 정황과, 6-1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저주의 신학적 위치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 연구사가 안고 있는 6-19절에 관한 번역의 문제를 재조명하며, 우리말 성경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번역의 다양성을 위한 설득력 있는 제언을 하고자한다.

## 2. 시편 109편 6-19절은 시인의 기도인가? 원수들의 저주인가?

### 1) 문제제기

시편 109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며, “저주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sup> 이 시편의 구조는 시인의 첫 번째 탄원(1-5절), 원수들의 저주(6-19절)와 이를 설명해 주는 ‘간행요목(Kolophon)’(20절)<sup>5)</sup>, 시인의 두 번째 탄원(22-29절) 그리고 그의 마지막 찬양과 신뢰의 고백(30-31절)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원수

- 
- 2) 김경수, “시편 가운데 ‘복수’와 ‘저주’의 요소를 어떻게 읽을까? 시 109편의 분석을 통해”, 『교수논문집(한영신학대학교)』, 2 (1998), 73-92; 김정철, “시편 109의 70에 대한 연구”,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 김이곤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서울: 한들출판사, 2006), 217-244.
  - 3) 함성국, 『시편해석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650; 김정준, 『시편명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339-340; 유행열, 『이땅을 사는 시인의 마음: 시편 연구』 하 (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5), 207.
  - 4) E. 쾨어, 『복수의 하나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원제는 Erich Zenger, *Ein Gott der Rache? Feindpsalmen verstehen* (Freiburg: Basel: Wien: Herder 2011), 182-185; 참조, 김태경, “시편연구사 -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328; 이일레,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유일신개념과 신정론”,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48-51.
  - 5) 윗글, 185; E. 쾨어는 그의 연구서에서 20절에 관하여 중세사본의 간행요목(Kolophon)의 하나(“서명”)라고 설명하고 있다; ‘간행요목’(Kolophon)이란 중세 사본에서 저자, 제목, 간행처, 발행처, 연월일 등의 명시해 주는 부분을 말한다.

들의 저주(6-19절)와 이를 설명해 주는 ‘간행요목’(20절)에 관한 문제는 H. Gunkel 이후 중요하게 제기되면서,<sup>6)</sup> 해석의 다양성이 수면위에 떠올랐다. 시편 109편 6-19절의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사는, “시편 109편 6-19절은 시인의 기도인가? 원수들의 저주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sup>7)</sup> 연구사는 특별히 양자(兩者)의 평형을 수용한 활발한 논쟁을 통하여, 시편 109편 6-19절은 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원수들의 저주로 인식하는 경향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들은 6-19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우리말 성경들은 시편 109편 6-19절에 관한 연구사의 논쟁을 반영하고 있을까? 본 논문은 6-19절의 번역 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위치하고 있는 5절의 번역의 문제를 함께 점검한다.

여기서 본 논문은 우리말 성경 전부를 다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말 성경 대부분의 번역이 대체로 대동소이하여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sup>8)</sup> 세 개의 번역, 「개역개정」과 「공동번역」 그리고 「새번역」을 선택하여 다루고자 한다. 시편 109편의 5-6절 우리말 성경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5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6절)

「공동번역」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보답합니다.  
 “부랑배를 내세워 그를 치자. 그 오른쪽에 고발자를 세우자(5-6절).

「새번역」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6)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476.

7) 2.2 연구사 부분 참조.

8) 참조: 「현대어성경」, 「표준 새번역」, 「쉬운성경」,와 「한글흠정역」.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5-6절).

「개역개정」은 5절 후반부를 ‘사랑을 갚았사오니’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번역은 내용상 중요한 결과를 빚어낸다. 5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을 6절과 연결하여 원인과 결과의 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시인은 ‘그들’이 악으로 자신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갚았으므로(5절), 하나님을 향하여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여(6절), 시인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기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그렇다면 「새번역」을 살펴보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새번역」의 경우 5절을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로 문장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6절을 인용구로 처리하고 있다. 큰따옴표를 동반한 6절의 문장은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한다. 이로써 「새번역」은 5절과 6절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 내용상으로 「새번역」도 「개역개정」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오히려 「새번역」의 경우 6절의 문장을 접속사, ‘그러므로’를 사용함으로 5절과 6절의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제 「공동번역」을 살펴보자. 「공동번역」은 얼마나 다를까? 「공동번역」은 「개역개정」 그리고 「새번역」과 구별되어 보인다. 5절 후반부를 ‘사랑을 갚았사오니’라고 번역하고 있는 「개역개정」과 달리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보답합니다’로 번역한다. 이어 큰따옴표를 동반한 6절의 번역은, 「새번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속사, ‘그러므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동번역」 5절과 6절은 내용상으로 「새번역」, 「개역개정」의 번역과 구별되어 보인다. 그렇다면 외국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영어 번역, 「NIV」와 「KJV」 그리고 「NASB」 번역 어디에도 우리말 「새번역」과 「개역개정」과 같이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

아 볼 수 없다.<sup>9)</sup> 이어서 독일어 번역, 「LUT」와 「ELB」을 비교해보자.<sup>10)</sup> 독일어 번역, 「LUT」와 「ELB」또한 우리말 성경번역,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5절과 6절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 볼 수 없다. 「ELB」번역은 특별히 히브리성경 「BHS」을 직역하고 있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ELB」는 5절과 6절을 문장부호 콜론(:)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나 콜론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문장부호 콜론(:)은 동격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처럼 5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말 성경, 특별히 「새번역」과 「개역개정」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 5절과 6절의 올바른 번역은 이후 20절 번역의 문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6-19절을 시인의 기도로 읽느냐?’ 또는 ‘원수들의 저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20절의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편 6-19절을 시인의 기도일까? 원수들의 저주일까?

## 2) 연구사

시편 109편에 관한 연구사는 특별히 6-19절의 ‘이해와 규정’의 문제에 집중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사는, “시편 109편 6-19절은 시인의 기도인가? 원수들의 저주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H. 궁켈은 그의 주석서에서 시편 109편을 저주시편으로 이해하면서 6-19절을 인용구로 규정한다.<sup>11)</sup> 궁켈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H. 크라우스는 6-19절을 인용구로 확정하며 그의 주석서에서 시편 109편 5절에 콜론, 혹은 쌍점(Doppelpunkt)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2)</sup> H. 크라우스는 시편 109편의 시인의 정황을 질병으로 인한 고난 가운

9) 참조: 「NIV」, 「KJV」, 「NASB」.

10) 참조: 「LUT」, 「ELB」.

11)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476.

12) H.-J. Kraus, *Psalmen 60-150*, 922;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Grand Rapids:

데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질병으로 인해 예배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시인은 그의 친구들 혹은 지인들로부터 방문을 받으며, 그들로부터 선행을 미움과 악으로 갚는 행위를 경험한다고 이해한다.<sup>13)</sup> E. 쾨어는 그의 연구서에서 시편 109편 6-19절에 관하여 ‘인용-가설’(Zitat-Hypothese)을 언급한다.<sup>14)</sup> 그는 시인이 6-19절에서 시인 자신의 멸망을 바라는 원수들의 저주를 매우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와 같은 인용형식은 시인의 절망과 무력함이 입체적이며 드라마처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인에 대한 원수들의 사회적 테러가 단계적으로 증가(Eskalation)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6-19절을 인용구로 주장하는 견해는 K. 세이볼트의 연구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15)</sup> 이 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편 연구사는 시편 109편 6-19절에 관하여 6-19절을 시인의 저주가 아니라 원수들의 저주로 이해하는 경향을 형성한다.

시편 109편 6-19절의 해석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를 살펴보자. 함성국은 그의 「시편해석서」에서 6-19절이 ‘시인의 말’이라고 주장한다.<sup>16)</sup> 그는 그의 견해를 근거를 20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그는 그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109편 6-19절을 사역하면서 이 단락을 아무런 설명 없이 큰따옴표로 처리하고 있는 현상이다. 김정준은 그의 시편 주석서에서 6-20절을 원수에 대한 시인의 저주로 규정한다.<sup>17)</sup>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6-20절이 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련하여 김정준은 이를 다음과 같이 변호하고 있다. 그는 시인 자신이 자기의 복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야웨의 원수를 향하여 야

---

Eerdmans, 2001), 260; A. 바이저, 「시편(II)」(김이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57; 바이저는 따옴표를 넣어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13) H.-J. Kraus, 윗글, 922.

14) E. 쾨어, 윗글, 185.

15) K. Seybold, *Die Psalmen: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Kt, Bd.15, (Tübingen: Mohr Siebeck, 1996), 133.

16) 함성국, 「시편해석서」, 650.

17) 김정준, 「시편명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339; 김태경, 「시편 II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v.18」(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273.

위의 저주를 경고하고 있다고 이해한다.<sup>18)</sup> 이들 연구와 달리 유행열은 그의 시편연구서에서 6-20절을 따옴표로 인용된 저주의 말들로 정한다.<sup>19)</sup> 그러나 여기서 그는 6-20절 저주의 대상을 시인이 아니라 시인의 원수들로 주장한다.<sup>20)</sup> 그 역시 6-20절을 시인의 저주로 이해하고 있다. 이로써 유행열 역시 우리나라 시편 연구사의 경향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물론 김정철은 그의 연구 논문에서 시편 109편 6-19절의 화자를 시인의 원수로 이해한다.<sup>21)</sup> 그러므로 김정철은 우리나라 시편 연구사 경향과 차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철처럼 6-20절을 원수들의 저주로 보는 견해는 매우 간헐적이어서, 시편 109편 6-19절과 관련하여 우리말 성경번역이 번역의 다양성을 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되기에는 역부족처럼 보인다.

### 3) 시편 109편 1-19절의 문학적 특징

#### (1) 시인의 첫 번째 탄원(1-5절)

시편 109편 1-5절에서 시인[시적화자]<sup>22)</sup>은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탄원하고 있다. 시인은 1절에서 저시브(jussive)<sup>23)</sup>의 의미를 지닌 부정형 동사, ‘침묵하지 마소서’(אל־תִּחַמֵּד)를 통하여 하나님의 침묵을 탄원한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키’(כִּי)로 시작하는 문장은 하나님의 침묵(1절)이 빚어내는 결과를 형상화 하여 탄원한다. 2절에서 ‘악한 입’(פִּי הָרָע)과 ‘거짓된 입’(פִּי הַמְרִיבִים)이란 동일한 언어의 반복적 표현과, 동의적 표현 ‘속이는 혀’(לִשְׁוֹן)

18) 김정준, *윗글*, 339.

19) 유행열, 「이땅을 사는 시인의 마음: 시편 연구 · 하」, 207.

20) *윗글*, 207.

21) 김정철, “시편 109의 707에 대한 연구”, 219.

22) 본 논문은 시편 109편의 구조에 따라 시인의 첫 번째 탄원(1-5절), 원수들의 저주(6-19절)와 이를 설명해 주는 ‘간행요목(Kolophon)’(20절)으로 증명하여 밝히기 전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 단락에 탄원하는 자를 ‘시인 [시적화자]’로 언급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탄원하는 자를 [시적화자H]로 언급한다.

23) 비교: 주용 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김정우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2), 147.

를 사용하여 원수들의 언어적 폭력에 대한 자신의 고통을 강조한다. 여기 시인에게 가해진 언어폭력의 주체가 되는 원수는 복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수 탄원에서 시인은 3인칭 복수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2절에서 시작된 3인칭 복수형 동사, ‘열다’(תָּחַד)와 ‘말하다’(דַּבֵּר)는 ‘언어폭력’의 주체는 다수이며 시인의 많은 사람들의 희생자인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며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3절에서 원수들은 ‘미워하는 말’(שִׁנְאוֹתַי)로 시인을 옥여짜며 이유 없이 공격하고 괴롭힌다. 여기서 사용된 ‘미워하는 말’은 2절에서 시인이 선택하고 있는 개념,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속이는 혀’와 동의적 표현이다. 이는 원수들의 행위의 내용을 대응시키며 원수들이 다수인 것과 동시에 원수들의 행위가 언어폭력이며 그 언어폭력의 다양성을 확인한다. 2절에서 3인칭 복수형 동사, ‘열다’와 ‘말하다’를 동사의 위치를 통해서 교차 대구법을 형성하고 있다. 3절에서 사용된 3인칭 복수 형태의 동사, ‘옥여짜다’(יָצַד)와 ‘공격하다’(יָלַחֵם) 역시 2절과 동일한 교차 대구법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시인은 2-3절에서 원수들의 행위를 구체적이며 사실적 ‘언어폭력’으로 고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4-5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선행과 그를 괴롭히는 자들의 악행을 서로 대조하여 그의 고난의 크기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시인은 원수들의 언어폭력을 4-5절에서 악으로 선을 갚은 행위로, 그리고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은 행위로 체험한다. 특별히 4절에서 시인은 1인칭 관련 표현, 동사(תַּחַת־אֶהְבֵּתִי)와 동사의 목적격 어미(וְשִׁנְאוֹתַי) 그리고 1인칭 대명사(אֲנִי)로 자신의 내적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sup>24)</sup> 더 나아가 5절에서 와우-접속법 미완료 동사, וְאִשְׁמוֹ(‘바야시무/‘똥다’, ‘값다’)를 수용함으로 현재의 고통을 자신의 과거의 삶과 대조하고 이미 일어난 과거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미 발생한 원수들의 언어폭력임

24) Bruce K. Waltke; James M. Houston,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A Historical Commentary* (Cambridge: Wm.B.Eerdmans, 2010), 443.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통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다.

이제 정리해보자.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시적화자]이 경험하는 고난은 원수들의 언어폭력이다. 여기 ‘언어폭력’에 대한 시적화자의 고발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1-5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과 고통을 드러내며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탄원하는 시인[시적화자]이, 탄원의 수신인이며 청자인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대상은 ‘그들’이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3인칭 복수 형태의 동사를 통해서<sup>25)</sup> 시인[시적화자]은 ‘언어폭력’의 주체를 다수로 규정한다.

## (2) 원수들의 저주(6-19절)

두 번째 단락은 명령형으로 시작하고 있는(6절) 저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히필 명령형(הִפִּיל)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두 차례의 동일한 전치사구(עַל־וְעַל־)를 사용함으로 히필 명령형 동사의 대상을 단수로 수용한다.<sup>26)</sup> 6절에서 이어지는 동사, ‘서다’(שָׁבַד) 역시 3인칭 단수 형태이다. 이처럼 동사의 대상을 단수로 수용하는 현상은 두 번째 단락 전체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19절은 한 단락을 형성하면서 ‘그’를 저주하는 원수[들]<sup>27)</sup>의 저주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그’를 향한 원수[들]의 저주 내용을 살펴보자. 원수들[시적화자 III]<sup>28)</sup>의 저주는 ‘그’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한다. 원수들은 악인이(רָשָׁע) ‘그’를 지배하며 대적(אֹיֵב)의 ‘그’의 오른쪽에 서기를 갈망한다. ‘그’의 원수들은 ‘그’가 죄인으로 판명되기를 원한다(6-7절). ‘그’의 원수들은 ‘그’의 기도

25) A. 바이저, 『시편 (II)』, 357.

26) 김경수, “시편 가운데 ‘복수와 저주’의 요소를 어떻게 읽을까?”, 77.

27) 본 논문은 이후 두 번째 단락의 저주의 주체들이 다수임을 밝힐 것이다. 이미 첫 번째 단락의 탄원의 주체가 단수로서 ‘그들’의 언어폭력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시인[시적화자]임을 밝혔다. 그러나 첫 번째 단락에서 언어폭력의 주체인 ‘그들’이 두 번째 단락의 저주의 주체와 동일하다는 것을 밝히기 전이므로 ‘원수[들]’이란 표기를 사용한다.

28) 각주 20 참조;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1), 258.

가 죄로 변하길 원한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대한다(7절).<sup>29)</sup> ‘그’와 원수들의 집단과의 첨예한 갈등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6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악과 죄의 지배에 ‘그’가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기 염원하는 원수들의 저주는(6-7절) ‘그’의 생명과 자녀에 관한 저주로 확산되고 있다(8-10절). 원수들은 ‘그’의 후손과 재산의 소멸을 소망한다(8절). 6-8절에서 원수들은 ‘그’ 개인의 삶을 저주하고 동시에 9-13절에서 ‘그’의 후손에 관하여 저주한다. 11-12절에서는 ‘그’의 사회적 관계를 재차 저주하고 있다. 13-15절에 이르기 까지 원수들의 저주는 ‘그’의 조상과 후손이 죄로 인하여 말살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 1-5절의 시적화자Ⅱ의 고발의 대상, ‘그들’과 6-19절의 시적화자Ⅲ의 저주의 대상, ‘그’의 유기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시편 109편 1-19절에 나타나는 두 가지 문학적 특징을 분석하여 설명하여 보자. 첫 번째 단락에서 탄원하는 시인[시적화자Ⅱ]이 탄원의 수신인이며 청자인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대상은 ‘그들’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단락과는 달리 두 번째 단락에서 시적화자Ⅲ가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대상은 ‘그’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락에서 시적화자Ⅱ가 고발하는 대상, ‘그들’과 두 번째 단락에서 시적화자Ⅲ가 저주하는 대상, ‘그’ 사이에 불협화음 빚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식적인 마찰을 통해서 어떤 정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6-20절을 시인의 저주로 이해하는 김경수는 그의 논문에서 5절과 6절의 인칭변화를 시인이 자신을 저주하는 많은 대적들 중,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극심한 저주와 훼방하는 한 사람을 저주한 내용으로 이해하며 시인의 과장으로 규명한다.<sup>30)</sup> 그러나 우리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여기 나타나는 인칭변화를 애가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sup>31)</sup> 이 불협화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락

29) O. Keel, *The Symbolism of the Biblical Worl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and the Book of Psalms* (Indiana: Eisenbrauns, 1997), 97.

30) 김경수, “시편 가운데 ‘복수와 저주’의 요소를 어떻게 읽을까?”, 83-85.

31) 비교: 김정우, 「시편주석 III」(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334; 비교: 브르그만, 「시편사색」(조호진 옮

과 두 번째 단락사이 어떤 특정한 정황이 전제되어 있는 것일까?

16-19절은 저주하는 원수들[시적화자Ⅲ]과 저주의 대상인 ‘그’가 체험한 삶  
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1-5절에서 악인의 저주에 노출되어 고통당하는 시인  
[시적화자Ⅱ]은 항상 ‘그들’을 의식하고 있다(복수형태). 그러나 6-19절에서 ‘그’  
의 멸망에 대한 저주는 한 개인을 다룬다(단수형태). 이것은 6-19절에서 원수  
들[시적화자Ⅲ]이 시편의 시인[시적화자Ⅱ]에 대하여 ‘그’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1-5절에서 시인[시적화자Ⅱ]은 그의 원수들인[시적화자Ⅲ], ‘그들’의 저주를 하나  
님께 탄원하고 있다고 해석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sup>32)</sup> 다시 말하면 첫 번  
째 단락의 ‘그들’은 두 번째 단락의 ‘그’를 저주하는 원수[들]과 동일한 인물이  
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는 첫 번째 단락에서  
‘그들’을 탄원하는 시인이다. 여기서 두 세계, 인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  
하는 원수의 언어들(6-19절)이 동시에 시인의 언어들(1-5, 21-31절) 서로 대  
조를 이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락의 시적화자와 두 번째 단락의 시적화자가 서  
로 다르다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자.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과 구  
별되는 특정한 정황이 전개되고 있다. 서로 다른 상황과 사건을 연출한다. 두  
번째 단락(6-19절)에서 원수들[시적화자Ⅲ]은 ‘그’에 대한 저주를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기술하며 장황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원수  
들[시적화자Ⅲ] 자신의 내적 고뇌를 찾아보기 힘들다. 시인[시적화자Ⅱ]이 ‘그들’  
의 저주를 ‘언어폭력’으로 고발하며 자신의 내면이 잘 드러나도록 자신의 고통  
을 탄원하는 첫 번째·세 번째 단락(1-5, 21-31절)과 사뭇 비교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락에서 원수들[시적화자Ⅲ]이 내면세계에 관한 표현 없이 ‘언어폭력’  
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독자에게 시적화자Ⅱ와 시적화자Ⅲ의 차별  
성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

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2), 115-117; 본 논문 2.2. 연구사참조.

32) E. 뎡어, 「복수의 하나님?」, 185; 레슬리 알렌, 「시편 101-150」 (손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139.

이제 앞에서 살펴본 특징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 단락에서 시적화자는 ‘그들’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폭로한다. 동시에 탄원의 대상을 ‘그들’로 규정한다(1-5절). ‘그들’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시적화자는, 두 번째 단락에서 자신이 당하는 ‘언어폭력’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상이 무엇인지를, ‘그’를 저주하는 저주문을 직접 인용하여 폭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단락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은 사건과 상황을 분리하여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시적화자를 서로 다른 인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언어폭력’을 고발하는 시적 화자는 시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그’를 저주하는 행위자, 즉 시인의 원수들은 ‘그들’과 동일한 인물이다.

사실상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는 동일한 내용·다른 표현을 통해서 공간이동이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첫 번째 단락에서 원수들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원수들의 행위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그들의 행위를 인용구를 통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시인은 동일한 내용·다른 표현을 두 단락으로 구성하여 형식적 균형감을 갖추고 있다.<sup>33)</sup>

물론 이 시편 자체가 인용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쟁어는 6-19절을 인용·가설로 주장한다.<sup>34)</sup> 탄원시편이 원수들과 무법자들의 말을 특히 그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문자적 인용 형태를 취하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비교. 시 3:3; 10:4, 6, 11, 13; 12:5; 13:5; 14:1).<sup>35)</sup> 이러한 현상은 예언서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 예언자의 예언과 시편의 기도에도 인용문은 특별한 표시를 필요

33) 레슬리 알렌, 「시편 101-150」(손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140-142: 시편과 예언자의 예언에서 인용문은 특별한 형식과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시 52:7; 95:8; 132:14; 137:3; 사 28:9-10).

34) E. 쟁어, *뫼글*, 185.

35) 이론의 여지없이 직접적인 대화는 시편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예를 들면 시편 2:3; 14:4; 22:9; 28:7; 30:10f; 32:8; 46:11; 50:7).

로 하지 않는다(사 28:9-10; 시 52:7; 95:8; 132:14; 137:3).<sup>36)</sup> 그러므로 시편 109편의 시인은 6-19절의 인용-가설을 통해서 ‘언어의 폭력’ 앞에 노출되고 포위된 시인 자신의 상황을 폭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6-19절을 원수들의 저주로 이해하면서 5-6절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개역개정」의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의 번역이 6절과 연결하여 원인과 결과 관계를 형성하는 해석을 자제하고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새번역」은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6절의 번역에서 히브리어 성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므로’ 접속사를 추가함으로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수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보답합니다.’라는 문장으로 문장을 마무리하고, 이후 6절의 번역을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부랑배를 내세워 그를 치자. 그 오른편에 고발자를 세우자.”라고 번역하는 것을 제안한다.

#### 4) 시편 109편 6-19절의 저주의 기능

기독교는 1세기 동안 교회의 예배에서, 특별히 카톨릭 성무일도에서 시편 109편 6-19절을 제외시켰다. E. 쟁어는 시편 109편의 오용역사에 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선례를 지적한다.<sup>37)</sup> 첫째로 그는 시편 109편에 관한 반 유대적인 사용을 지적한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약성서의 반 유대적 논쟁은 가롯 유다의 모습에서 발견된다. E. 쟁어는 그의 연구서에서 기독교 역사가 시편 109편 8b절을 가롯 유다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읽는 것을 반 유대적 사용이라고 주장한다(행 1:1-20).<sup>38)</sup> 두 번째 오용에 관하여 E. 쟁

36) 레슬리 알렌, *윌클*, 140-142.

37) E. 쟁어, 「복수의 하나님?」, 179.

38) *윌클*, 179.

어는 시편 109편을 원수들의 죽음을 사주하는데 사용한 흔적을 지적한다. 바 이에른,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에서 19세기까지 시편 109편을 원수들의 죽음을 사주하는데 사용하였다.<sup>39)</sup>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는 시편 109편 6-19절을 “유대교적인”이며 “하층 기독교적”(unterchristlich) 표현들로 규정하는 오류를 자행했다. 이러한 오용은 시편의 표현들 대부분을 잘못 이해함으로 발생한다.

우리는 16-19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시인은 인용구 형식을 사용하여 원수들의 ‘저주’를 폭로하고 있다. 왜 시인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까? 원수들이 시인을 저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6-19절에서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시인을 저주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인자를 베풀지 않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꺾박하며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16절). 그리고 시인이 저주하기를 즐겨하는 자이므로 원수들도 시인을 저주하고 있음을 두 번째 이유로 밝히고 있다(17-19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필연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원수들의 눈에 시인이 이렇게 관찰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원수들은 시인을 저주하는 자로 이해할 것일까? 원수들의 무리가 시인의 저주행위를 고발하는 것이라면, 그들 자신 또한 저주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사이클과 같은 사고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것일까? 원수들의 언어적 표현은 어떤 사회·문화적 요소와 역사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는 것일까? 왜 시인의 원수들은 침예한 갈등의 문제를 저주의 수단을 선택하여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저주’가 실제적 파괴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sup>40)</sup> 신명기 27장 15-26절은 저주문장(Fluchsätze)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1)</sup> 의로운 삶

39) 윗글, 179.

40) Hans Ulrich Steymans, “Segen und Fluch”, RGG 7, 1132: 구약성서에서 저주는 축복의 개념과 평행을 이루며 나타난다. 정결과 불결, 죄와 속죄, 거룩함과 속됨, 축복과 저주의 팽팽히 긴장된 양면성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삶의 기본적인 인식체계이다. 저주와 축복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쓰인다. 구약성서에서 저주와 축복의 개념은 말로 표현된 행위가 동시에 수행되는(performativ) 측면을 특징으로 가진다. 저주는 이스라엘 삶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며(잠 17:13), 이스라엘 예배공동체에서 수용한다(시 58:6-9; 69:22-28; 137:7-9)

41) Uwe Becker, *Exegese des Alten Testament*, UTB 2664 (Tübingen: Mohr Siebeck, 2005), 112.

을 위한 계명이 ‘저주’와 함께 나타난다.<sup>42)</sup> “세겔지파의 12계명”(sichemische Dodekalog)은 초기 야웨 신앙 대부분 고대 근동의 금지에 관한 자료로서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만날 수 있다.<sup>43)</sup> 신명기 27장의 계명은 이스라엘이 야웨의 뜻을 알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삶의 비밀스러운 모든 부분까지 해당됨을 말한다.<sup>44)</sup> 그러므로 저주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명기 27장 15-26절, “세겔지파의 12계명”은 신학적으로 중요하다.<sup>45)</sup> “세겔지파의 12계명”에 나타나는 금지 사항들은 초기 이스라엘의 법률(legal) 전통 어디에서든 나타난다.

신명기 27장 15-26절에서, 저주의 내용들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살인, 부모공경, 소경과 가난한 자들, 성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주’의 실제적 파괴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숭배에 관한 금지와 저주 언급이후(15절), 타인과 관련된 행위에 관한 계명이 16절부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sup>46)</sup>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저주’의 실제적 파괴 능력은 ‘은밀히’(15, 24절) 행해지는 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명기 27장의 저주의 내용이 시사하는 것은 ‘저주’의 실제적 파괴 능력이 공적인 기관의 통제의 범위

42) 윗글, 112.

43) G. von Rad, *Deuteronomy*,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66), 167.

44) 윗글, 169.

45)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7), 192: 구약성서에서 계명에 관한 신학적 주제는 가장 먼저 십계명(Dekalog)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사에서 십계명(Dekalog)의 위치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양식 비평적 연구사는 계명에 관한 신학적 주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의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명기 27장 15절 이후의 내용들로 “세겔지파의 12계명”(sichemische Dodekalog)이다.

46) R. Rendtorf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ein kanaanischer Entwurf* (Neukirchen-Vluyn, 2001), 75; 김정준, 「시편명상」, 339: 예레미야도 원수의 불행을 기원한다(렘 11:20); Hans Ulrich Steymans, “Segen und Fluch”, RGG 7, 1132: 저주는 공동체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시 10:7; 62:5; 잠 10:6; 11:26; 28:27; 렘 44:22; 호 10:4). 저주는 특별히 사회적 삶을 위협함으로 부모에 대한 저주(출 21:17; 레 20:9; 잠 20:20)와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출 22:27; 레 24:11-16; 삼하 16:5-13)는 사형에 해당된다. 사사기 18장 2절에서 은 일천일백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것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저주’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잃어버린 돈을 찾게 된다(비고, 잠 30:10). 여기서 저주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구별하여 규정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부정적인 의미라고 규정한다면, 다음은 긍정적 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시편 109편 6-19절의 저주는 시인과 한 집단과의 침예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시인을 저주하고 있는 원수들은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은 시인의 행위를 저주로 고발하고 있다(16절). 원수들에게 시인은 신명기 27장 15-26절, 하나님에 관한 계명, 살인, 부모공경, 소경과 가난한 자들, 성문제등의 저주의 내용들 중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자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처럼 원수들의 저주 문장 속에는 그들의 사회·문화적 요소와 역사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시인과 시인의 집단이 동일하게 신명기 27장 15-26절 저주문장(Fluchsätze)의 영향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7)</sup> 이처럼 시편 109편의 시인과 그의 원수들이 구성하는 사회 집단은 이스라엘의 저주문장(Fluchsätze)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109편 '원수들'의 저주(16-19절)는 시인에게 언어 폭력이며 시인에게 고통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저주는 시인에게 절체절명의 고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삶의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원수들의 저주에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폭로하기 위한 시인의 탄원은 필연적이다. 또한 시인은 그의 고통을 인용형식에 담아 탄원하고 있다.

### 5) 6-19절의 '간행요목'(20절)

이미 연구사가 밝힌 것처럼, 시편 109편의 구조에서 20절의 신학적 위치는 '원수들의 저주'(6-19절)와 깊은 관련성 속에서 설명해야 한다. 우리말 성경은 시편 109편 20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6-19절을 대부분 시인의 저주로 이해하며,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입장 또한 매우 간헐적이어서 우리말 성경은 해석의 다양성보다 획일성을 보여 주고 있다. 6-19절에 관한 오해는 20절 해석과 관련하여 피할 수 없는 오류를 낳게 했다. 우리말 성경 시편 109편 20절

---

47) K. Seybold, *Die Psalmen: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Kt. Bd.15 (Tübingen: Mohr Siebeck, 1996), 133: 시인의 원수들의 그의 삶의 범주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다(29절).



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개역개정」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니이다(시 109:20).

「공동번역」

나에게 악담하며 고소하던 자들이 야훼의 이러한 갚음을 받게 하소서(시 109:20).

「새번역」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시 109:20).

「개역개정」의 번역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아트나의 기능을  
간과하고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20절 두 번째 단어, 페올라트  
(פְּעוּלָרַט)를 벌(punishment) 혹은 보상(reward)의 뜻을 가진 ‘보응’으로 해석하  
고 있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개역개정」의 번역은 히브리어 성서와 다소 거리  
가 있는 해석을 하고 있다.<sup>48)</sup> 히브리 성서를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영  
어성경을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 (1) ‘페올라트’(פְּעוּלָרַט)의 기능

20절 번역에 있어 ‘페올라트’(פְּעוּלָרַט)의 기능을 고찰해보자. ‘페올라트’는 사람  
과 관련하여 “일”, “행위” 그리고 “보응”의 의미로 사용되며 동시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행위”, “보응” 그리고 “징벌”의 의미로 사용된다.<sup>49)</sup> 「개역개정」의 20

48) 물론 여기서 독일어 성경. 「ELB」는 페올라트(פְּעוּלָרַט)를 보상(reward)으로 해석하고 있다.

49) Illman, “פְּעוּלָרַט”, ThWAT Bd VI (1998), 701.

절에서 ‘페올라트’를 ‘보응’으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개정」의 20절 번역,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니이다”에서, 히브리 성서 20절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를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읽어보자. 20절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는 나의 대적들이 ....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니이다’라는 문장은, 6-19절에 시인의 복수심이 투영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개역개정」 20절 전반부의 번역은, 다시 한 번 6-19절을 ‘원수들을 향한 시인의 저주’로 규정하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시인은 잔인하게 그들을 향한 자신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제 「공동번역」의 번역을 살펴보자. ‘나에게 악담하며 고소하던 자들이 야훼의 이러한 깊음을 받게 하소서’라고 번역한다. 「공동번역」도 「개역개정」의 번역과 의미상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 여기 「공동번역」의 번역은 특별히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공동번역」의 5-6절 번역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말 「개역개정」 그리고 「새번역」과는 달리 6-19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절에서 다른 번역과 차별성 없는 번역은 「개역개정」과 「새번역」처럼 5-6절 번역의 의미 또한 6-19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번역」은 ‘페올라트’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20절을,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로 번역하고 있는 「새번역」의 경우, 의역의 흔적이 지나쳐 보이지만 의미상으로 「공동번역」과 「개역개정」의 번역 좀 구별되어 보이는 듯하다. 왜냐하면 「새번역」의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20b) 부분은 히브리 성서 20절 전반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번역」 또한 히브리 성서의 의미를 벗어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과 「개역개정」 그리고 「새번역」은 친편일률적으로 20절 두 번째 단어, 페올라트를 벌(punishment) 혹은 보상(reward)의 뜻을 가진 ‘보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히브리 성서와 전혀 다른 우리말 성경

번역은 시편 109편의 실제적 신학적 주제를 놓치고 있다.

20절 두 번째 단어, 페올라트는 벌(punishment) 혹은 보상(reward)의 뜻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work)의 의미를 첫 번째 뜻으로 가진다. 물론 20절 두 번째 단어, 페올라트를 우리말 번역과 독일어 성경, 「ELB」와 영어 번역, 「NIV」와 「KJV」 그리고 「NAS」번역은 벌(punishment), 보상(reward)등으로 해석하고 있다.<sup>50)</sup> 그리고 실제로 독일어 성경, 「LUT」번역은 “So geschehe denen vom HERRN, die wider mich sind und die Böses reden wider mich”(시 109:20)라고 번역함으로, 페올라트를 벌(punishment) 혹은 보상(reward)의 뜻을 가진 ‘보응’의 의미보다는 일(work)의 의미로 내포하여 번역하고 있다. 실제로 크라우스는 그의 주석서에서 페올라트를 “보응”이 아니라 “일”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단어, 페올라트 이후에 위치하고 있는 “מַעֲשֵׂה יְהוָה”(메에트 아도나이/여호와로부터, 여호와와 의 편에서)를 운율적인 이유를 근거로 삭제할 요구한다.<sup>51)</sup> 그러므로 페올라트를 일(work)의 의미로 해석할 때 ‘이것이 여호와와 의 편에서(von seiten) 나의 대적들의 일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인은 시편 109편 6-19절의 ‘언어폭력’의 원흉이 원수들임을 분명히 하며 고발한다.

## (2) 아트나 기능

20절에 나타나는 아트나 기능을 분석해보자. 히브리 성서에서 ‘아트나’는 절(Vers)을 두 문장으로 나누는 기능을 한다.<sup>52)</sup> 독일어번역과 영어번역은 아트나 기능을 숙지하고 있을까?

50) 본 논문은 현재 활용중인 50여종의 영어번역과 독일어 번역을 지면상 다 다룰 수 없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영어번역의 경우 「NIV」와 「KJV」 그리고 「NAS」와 독일어 번역의 경우 「LUT」와 「ELB」를 비교할 수 있다.

51) H. J. Kraus, *Psalmen, BK XV/2*, 918-920;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476; 크라우스는 “מַעֲשֵׂה יְהוָה”를 운율적인 이유를 근거로 삭제하는 궁켈의 주장에 견해를 같이한다.

52) Heinz-Dieter Neef, *Arbeitsbuch Hebräisch: Materialien, Beispiele und Übungen zum Biblisch-Hebräisch* (Tübingen: Mohr Siebeck, 2012), 39.45.46.

독일어 번역, 「LUT」와 「ELB」와 영어 번역, 「NIV」와 「KJV」 그리고 「NAS」번역에서 동일하게 아트나 기능을 의식하여 두 문장으로 번역하고 있다.<sup>53)</sup> 그리고 히브리어 “זאת” (쫘트/이것이)를 지시대명사로 번역하고 있다. 이 지시대명사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지적함으로 6-19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독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20절에 나타나는 아트나의 기능을 적용하여, 6-19절을 원수들의 저주로 읽을 수 있도록, 20a절을 이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 「BHS」를 살펴보자:

זֹאת פְּעֻלַּת שְׂטָנִי מֵאֵת יְהוָה וְהַדְּבָרִים רָעַ עַל-נַפְשִׁי: (시109:20)

20절은 아트나 기능을 통해서 두 문장을 구성한다. 히브리어 BHS 성경에서 시인은 히브리어 지시대명사, “זאת” (쫘트/이것이)를 첫 번째 단어로 취하여 ‘이것이 나의 대적들의 일입니다’(זֹאת פְּעֻלַּת שְׂטָנִי)라는 문장으로 20a절을 시작한다.<sup>54)</sup> 그리고 아트나를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이 여호와와 의 편에서(von seiten) 나의 대적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20절 하반절, 아트나 이후의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은 내 영혼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시인은 ‘언어폭력’의 원흉이 원수들임을 분명히 하며 고발한다. 독일어 성경과 영어번역은 아트나 기능을 의식하여 해석하므로 우리말 성경 번역이 범하고 있는 오류에서 벗어나고 있다.

시편 109편 20절의 해석과 관련하여 H. J. 크라우스는, “Dies ist die Tat meiner Verkläger und derer, die Böses gegen mich reden.”이라고 해석하고 있다.<sup>55)</sup> 그는 여기서 히브리어 지시대명사대명사 “זאת” (쫘트/이것이)의 기능을 강조하며, 동시에 아트나 기능을 의식하고 있다. 쟁어는 그의 연구서에서 20

53) 참조: 「ELB」, 「LUT」, 「KJV」, 「NAS」, 「NIV」.

54) 참조: 2.5.1. ‘페올라트’(פְּעֻלַּת)의 기능

55) H. J. Kraus, *Psalmen*, BK XV/2, 918.

절을 다음과 같이 사역한다: “이것은 나의 대적들이 여호와께 나에게 대하여 저주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쟁어는 20절이 6-19절의 내용을 요약하며 새로운 테마로 읊고 있는 중세사본의 간행요목(Kolophon)의 하나라고 설명한다.<sup>56)</sup>

이와 같은 문학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20절의 신학적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중세 사본에서 저자, 제목, 간행자, 발행처, 연월일 등의 명시해 주는 부분을 ‘간행요목(Kolophon)’ 이라고 한다.<sup>57)</sup> 그러므로 중세 사본에서처럼, 우리는 20절을 지금까지의 6-19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는 ‘간행요목(Kolophon)’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58)</sup> 시편 109편 6-19절을 원수들의 저주(6-19절)로 이해하며 20절 이를 설명해 주는 ‘간행요목(Kolophon)’이라는 연구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독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바른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09편 20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대적들이 여호와께 나에게 대하여 저주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 영혼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 6) 시인의 두 번째 탄원(22-29절)과 신뢰의 고백(30-31절)

21-31절은 시인의 탄원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다. 21-29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다. 시인은 하나님 구원의 당위성을 여호와와의 이름을 근거로 제시한다. 시인은 자신의 아픔과 원수들의 저주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탄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יְהוָה)을 위하여 시인의 상황과 고통에 섬세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חַסְדִּים)을 증명해야 한다. “그 자신의 이름 때문에”(21절) 야웨께서 원수들의 저주를 중지시켜야만 한다.

고대근동의 대부분의 신들은 각각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다. 히브리어 성서

56) E. 쟁어, 「복수의 하나님?」, 188.

57) 윗글, 185.

58) 윗글, 185.

의 하나님의 이름은 모음이 없는 JHWH이다. 하나님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온 세상의 하나님을 의미한다.<sup>59)</sup> 하나님 이름과 관련하여 히브리 성서는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한다. 엘, 엘로힘, 엘 사다이, 켈바오트 등이다. 그리고 히브리 성서에서 ‘이름’을 나타내는 개념, ‘셈’(שם)은 하나님에 관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시편 18편 50절의 경우,<sup>60)</sup> ‘당신의 이름’(שְׁמֹתֶיךָ)은 앞에 등장하는 JHWH와 평행을 이룬다.<sup>61)</sup> 여호와가 시인의 감사의 대상이듯 ‘당신의 이름’이 감사의 대상이며, ‘당신의 이름’이 찬송의 대상이듯 여호와가 시인의 찬송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이제 시편 109편 21절을 보자:

וְאַתָּה יְהוָה אֱדַרְבֵי עֲשֹׂה־אֵתִי לְמַנְעַן שְׁמֶךָ כִּי־טוֹב חֲסִדֶיךָ הַצְּיִלָּנִי:

그러나 당신, 여호와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행하소서 (시 109:21a)

당신의 인자하심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소서(시 109:21b)

이처럼 시편 109편 21a절에서 ‘שם’(셈/이름)은 JHWH와 평행을 이룬다. 그러므로 시편 109편 21a절의 ‘לְמַנְעַן שְׁמֶךָ’(레마안 쉘메카/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걸고; 이름 때문에)의 의미는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시인과 함께 해야 한다. 시인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 속에서 시인은 그의 탄원을 확장시킨다. 시인은 시편 109편 21a절에서 그의 신학적 하나님 이해를 근거로 21b절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21b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선하심(רַחֲמֶיךָ)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다.

59) R. Rendtorf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ein kanaanischer Entwurf*, 160–161.

60) עֲלֵי־בֶן אֲדַרְבֵי בְנֵי־יְהוָה וְלִשְׁמֶךָ אֲזַכְּרֶהָ:  
‘여호와여 이렇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시 18:50).

61) 윗글, 164.

시인의 첫 번째 단원(1-5절)과 두 번째 단원(21-29절)의 내용은 공통점이 분명하다. 신학적 주제는 사회적 관계<sup>62)</sup>로 인한 고통을 폭로하고 있다. 시인은 22-25절에서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하며 육체 또한 연약한 상황을 단원하고 있다.<sup>63)</sup> 그리고 그는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있음을 단원한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단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26-27절에서 하나님 의 빠른 개입을 간청하고 있다. 원수들의 저주에 관하여 시인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의 보호함을 노래하며, 그들의 저주의 행위가 수치가 되기를 간구한다.<sup>64)</sup> 그리고 최종적으로 30절과 3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과 감사의 대상으로 고백한다. 시인에게 여호와는 심판자로서, 6-19절의 저주 앞에 노출되어 있는 시인을 구원하신다.

### 3.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시편 109편 6-19절의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편 109편의 연구사가 도출한 해석의 다른 가능성을 우리말 성경 번역과 비교 연구하였다. 시편 109편 6-19절의 해석의 문제는 시편 109편의 신학적 이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단락(1-5절)과 두 번째 단락(6-19절)사이 특정한 정황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밝히고 첫 번째 단락의 원수 단원에서 ‘언어폭력’의 주체가 다수의 원수들이라는 사실을 규정했다. 두 번째 단락과 첫 번째 단락과의 언어와 모티브 차이를 통하여 두 번째 단락(6-19절)이 시인을 저주하는 “원수들의 저주”임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우리말 성경의 5-6절에 관하여 번역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먼저 5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 ‘깊었

62)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03), 200; 비교: 시 22:8; 71:10; 109:25.

63) 윗글, 200.

64) E. 쾨어, 「복수의 하나님?」, 185.

사오니'라고 번역하여 6절과 연결시켜 원인과 결과의 틀을 형성하는 번역을 지양해야한다. 1-5절이 시인의 탄원이며 그 탄원의 출처가 6-19절의 원수들의 저주로 인한 것임으로, 우리는 5절을,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보답합니다.”라는 완전한 문장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원수들의 저주, 6-19절의 첫 문장이 되는 6절을 “부랑배를 내세워 그를 치자. 그 오른편에 고발자를 세우자”로 번역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의 우리말 성경 시편 109편 6-19절에 관한 연구는, 5-6절에 관한 번역의 다양성에 관하여 제안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0절에 대한 번역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번역을 제시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6-19절은 한 단락을 형성하면서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저주행위에 관하여 시인은 인용형식으로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언어로, 6-19절을 다시 한 번 원수들의 저주로 확정하여 고발하기 위해서, 20절을 이를 설명해 주는 ‘간행요목(Kolophon)’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20절을, “이것은 나의 대적들이 여호와께 나에 대하여 저주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 영혼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로 해석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5, 6, 20절에 관한 번역에 대한 제안은 해석의 다양성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시편 109편의 신학적 중심사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한다.

#### 4. 참고문헌

- 김경수, “시편 가운데 ‘복수와 저주’의 요소를 어떻게 읽을까? -시 109편의 분석을 통해”, 「교수논문집(한영신학대학교)」2 (한영신학대학교, 1998), 71-92.
- 김정준, 「시편명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 김정우, 「시편주석 III」(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 김태경, 「시편 II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김태경, “시편연구사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53집 (2014년 9월),



325-354.

유행열, 「이땅을 사는 시인의 마음I; 시편 연구·하」(서울: 도서출판 한들, 1995).

이일레,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유일신개념과 신정론”, 「구약논단」56집 (2015년 6월), 38-64.

함성국, 「시편해석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레슬리 알렌, 「시편 101-150I, WBC 21」(손석태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1).

A. 바이저, 「시편 (II)」(김이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주용 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김정우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2).

브르그만, 「시편사색」(조호진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2).

E. 쟁어, 「복수의 하나님?」(이일레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원제: Erich Zenger, *Ein Gott der Rache? Feindpsalmen verstehen* (Freiburg; Basel; Wien: Herder, 2011).

Becker, Uwe., *Exegese des Alten Testament*, UTB 2664 (Tübingen: Mohr Siebeck, 2005).

Gerstenberger, E. S.,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1).

Gunkel, H.,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Hossfeld, F.-L. and Zenger E., *Psalms 3: A Commentary on Psalms 101-150* (Augsburg: Fortress Press, 2000).

Illman, “פַּעַל”, ThWAT Bd VI (1998), 697-703.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Keel, O., *The Symbolism of the Biblical Worl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and the Book of Psalms*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www.kci.go.kr

- 1997).
- Kraus, H.-J., *Psalmen II: Psalm 60-150*, BK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 Neef, Heinz-Dieter, *Arbeitsbuch Hebräisch: Materialien, Beispiele und Übungen zum Biblisch-Hebräisch* (Tübingen: Mohr Siebeck, 2012).
- Rendtorff, 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ein kanoischer Entwurf*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 Seybold, K., *Die Psalmen: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Kt, Bd. 15 (Tübingen: Mohr Siebeck, 1996).
- Steymans, Hans Ulrich, “Segen und Fluch”, RGG 7, 1132.
- von Rad, Gerhard., *Deuteronomy,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66).
- von Rad, Gerhar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7).
- Waltke, Bruce K. ; Houston, James M.,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A Historical Commentary* (Cambridge: Wm.B.Eerdmans, 2010).

검색어

시편 119

원수들

저주

간행요목

인용 형식

## Psalm 109: 6-19, the Prayer of the Poet or the Curse of the Enemies?

Il-Rye Lee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Ruhr- Bochum University, Dr; theol.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09:6-19, this research points out that, unlike the existing studies of the text,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in Korean Bibles cannot show the diversity of the interpretation of it due to the improper translation in Korean Bibles. To demonstrate this point, the researcher compares the conclusion derived from the existing studies of the text with Korean versions. The interpretational problem of Psalm 109:6-19 is highly important for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 This paper reveals that there is a specific situation between the first (verses 1-5) and the second section (verses 6-19), and that the main active agent of the 'verbal violence' in the entreaty in regard to enemies in the first section is a variety of enemies. The differences of language and motive in both sections also explain the fact that the second section is the "curse of the enemies."

This conclusion suggests the ground for diverse and proper translations of Psalm 109:5-

[www.kci.go.kr](http://www.kci.go.kr)

6 in Korean Bibles. The last part of verse 5 is translated as “repaid” in the Korean Bibles, which is forcefully supposed to connect with verse 6 in the form of reason and conclusion. Therefore, this is an improper translation to be avoided. Verses 1-5 are the begging of the poet and its source is the curse of the enemies in verses 6-19. Therefore, we need to interpret verse 5 as a complete sentence: “They repay goodness with evil and reward love with hatred.” In addition, the curse of the enemies in the first sentence of verse 6 can be interpreted as “let us hire bullies to harass him. Let us hire accuser on the right side.” Furthermore, the study related to verses 6-19 is not only giving a proposal to a proper translation of verse 5-6 but also demanding a re-examination of the translation of Psalm 109:20 in the Korean Bible.

In verses 6-19, which form one section, the poet laments the actions of his enemies through a quotation form, who curse him. In verse 20 (colophon), the poet also uses his own words to precisely explain verses 6-19 once again. Therefore, we require to translate verse 20 as follows: “This is the curse of my enemies against me. They are those who spoke evil of me.”

## Keywords

Psalm 109

enemies

curse

colophon

quotation form

- 투고일: 2018년 7월 6일
- 심사일: 2018년 7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7월 27일

[www.kci.go.kr](http://www.kci.go.kr)